

철학사 21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철학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지난 시간에는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그의 영향과 신플라톤주의의 한계에 대한 그의 비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종합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화된 플라톤주의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화된 플라톤주의인 만큼, 그 핵심에는 당연히 형상론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형상을 신의 마음속에서는 초월적인 것으로, 창조 세계에서는 내재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플라톤 그 자체보다는 신플라톤주의적 관점, 즉 플라톤의 발산 개념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관점에서 형상들은 영원한 진리, 즉 영원한 생각, 영원한 진리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신의 관점에서 원형이자 패턴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예지, 창조를 이루신 영원한 계획, 그리고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영원한 이성(rationes eterne)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자체에는 근본적인 이성, 근본적인 사상,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길고도 흥미로운 연구에서, 그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에 대한 주석을 달 뿐만 아니라, 이 형상론과 그것을 엮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된 모든 종류의 사물들은 최초의 창조 행위의 씨앗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그 후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형상들은 다양한 사물에 질서와 본성을 부여하는 형상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본질, 즉 사물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형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플라톤 철학 전통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식론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형상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플라톤의 저작에서는 변증법을 통해 선천적인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형상은 인간 정신 속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형상이 사물, 즉 개별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별 사물 전체의 부류에 대한 경험에서 형상을 추상화함으로써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아니다. 그는 너무 플라톤적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전히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은 각기 다른 이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이 부여한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는 마치 신과 연결되는 통로를 가진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 통로 덕분에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속에 직접 접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혼이 신의 본질을 직접 목격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신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일반적인 형상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형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가장 이교도적인 불신자들조차도 신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기독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설명이 맞는 걸까요? 슈툼프는 그 설명을 제시하는데, 다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코블스톤은 그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점은 오히려 신이 인간의 마음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개별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형태와 본질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것들은 그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

플라톤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초월적인 형태로 형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통해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형상을 추상화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지 못했던 신성한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깨달음 덕분에 창조된 사물의 본질에 관한 영원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즉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에 대해 인용합니다.

신성한 로고스에 의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조명. 그러므로 로고스 교리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고스가 정신을 밝히는 인식론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중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로고스가 창조를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로고스의 형이상학적 기능과 인식론적 기능 모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에는 신적, 신인적 협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concursus)'이라는 용어는 이후 신학자들이 신적 활동과 인간 활동이 공존하는 방식, 즉 신적 활동과 인간 활동이 협력하여 사상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신과 인간의 대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일부 교부들이 이교도 작가들이 가졌던 지식에 대해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즉,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 매우 일관성 있는 유신론의 한 형태입니다. 유신론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계속 의존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피조물의 인식론적 의존 또한 하나님께 계속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론적 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협력, 즉 신이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인간의 활동과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여러 저서, 특히 《아카데미주의자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학자들에 반대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학자들은 학계의 회의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헬레니즘 시대 회의주의 역사에는 초기 그리스 회의주의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후대에 이르러 회의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 학파에 반박하며』에서 바로 이러한 회의주의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넬리우스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예로 논리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논리적 진리란 동일성의 법칙, 즉 모순율의 법칙과 같은 논리적 형태를 지닌 진리입니다. A는 A와 같고, A는 A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진리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내가 틀렸거나 속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주장. 법의 법칙(lawsome)을 참조하십시오. 회의론자조차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른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는 알지 못하는 존재로 존재해야 한다. 법의학(lawsome)을 참조하라. 그는 이러한 종류의 진실을 이해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 변증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저서에서, 예를 들어 자유의지에 대해 논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저서에서 그는 이러한 토대 위에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의 논증은 특정한 진리들이 참인 이유는 그것들이 진리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문자 T. 다시 말해, 그들은 진리의 본질이자 본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상, 모든 참된 것들이 참이 될 수 있는 근원인 불변의 진리의 본질이자 본성은 다름 아닌 로고스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에서 진리로 나아가십니다.

로고이에서 로고스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의 논증. 이는 아마도 기독교 사상가가 유신론적 논증을 전개하려는 최초의 독창적인 시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 논증은 후대의 중세 작가들에게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잘 살펴보십시오. 스승에 관한 그의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르기아스라는 고대의 회의주의자 소피스트들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 그 질문의 형식을 제시합니다.

고르기아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나는 그것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 해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한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제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언어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 등에 대한 단순화된 생각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런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요점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외부의 스승이 아니라 우리 안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마음을 밝히는 스승, 즉 로고스가 바로 그 스승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인식론을 전개하는 방식은 로고스의 인식론적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서문을 인용하여 그가 로고스를 그리스도와 명확하게 동일시하는 방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그가 어떻게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내는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요?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영혼은 스토아 학파와 테르툴리아누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비물질적인 실체입니다. 또한, 영혼은 플라톤과 그의 추종자였던 오리겐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재하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를 부인하는 이유는 영혼이 변화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공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시간적인 것이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개별 영혼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탐구합니다.

하나는 그가 거부하는 선재설인데, 이는 기독교 사상이 수 세기에 걸쳐 대체로 거부해 온 이론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그는 스토아 학파의 테르툴루스가 받아들였던, 영혼이 육체적 생식을 통해 전해진다는 견해를 고찰한다.

그는 개별 영혼이 수정 이후 어느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 따로 창조된다는 창조론적 관점을 고려하지만, 마지막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기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영혼이 선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확신합니다. 즉, 인간은 육체를 사용하는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때때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성적인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기 저작에서는 이 표현이 육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며, '육체를 가진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진 존재이지, 단순히 육체를 이용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육체를 이용한다는 표현은 너무 플라톤적인 발상처럼 들리지만,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합쳐진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영혼만이 비물질적인 실체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독립적인 존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불멸성은 영혼이 전체 인격이라는 복합적 실체의 일부인 비물질적 실체 라는 사실에 기인 합니다 . 결과적으로 그는 영혼의 불멸성을 뒷받침하는 플라톤의 논증들을 기꺼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비물질적이고 비공간적이므로 분할될 수 없다는 논증 같은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파괴할 수 없으므로 불멸이다. 플라톤의 말을 기억하시죠? 그는 독백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멸에 관한 대화에서도 또 다른 플라톤적 논증을 사용하는데 , 생명을 주는 것은 영혼이며, 생명을 주는 존재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에 의존하지만, 영혼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습니다 . 따라서 그의 불멸에 대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그리스 철학적 논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그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스토아학과처럼 영혼에 대해 유물론적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은 영혼이 신체 전체에 공간적으로 퍼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이 신체의 감각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비물질적이라면 공간적으로 퍼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석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확산시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배하는 겁니다. 신체의 각 부분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적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리에 어렴풋이 느껴지는 감각이 뭔지 알고 싶을 때 다리를 살펴보잖아요? 마음을 다리에 집중시키는 거죠. 꼭 다리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아마도 느끼는 것 외에도, 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즉, 그러한 생생한 주의력, 정신적인 주의력 덕분이죠.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듯이, 그가 마음이나 영혼에 감탄하는 점 중 하나는 그것이 공간을 초월하여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들까지 생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며칠 동안 워싱턴과 상원 청문회 에 쏠려 있었죠. 흥미롭네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들의 마음은 그런 면에서 자신의 육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성과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에 관해, 적어도 제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간과 영원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쪽부터 520쪽까지 의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관점이 기독교로 전환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플라톤에게 시간은,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영원의 변화하는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시간의 세계, 즉 시간이라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변화하는 개별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영원의 영역에서는 변하지 않는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별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 형태의 변화하는 복제물일 뿐입니다.

시간은 영원의 변화하는 형상이다. 이것이 플라톤이 시간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단순히 물리적 운동의 척도라고 정의했다.

시속은 움직임을 측정하는 단위이자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 의식, 즉 영혼 속에 존재하는 시간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자기 성찰적인 심리학적 서술 연습입니다. 시간 의식의 심리학을 자기 성찰적으로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영혼 안에서는 오직 현재 시간만이 실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 아니라면 지금이 아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현재이며 실재한다. 기억은 실재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현재의 기대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현재 경험 속에서, 바로 이 순간, 과거는 기억 덕분에 현재가 됩니다. 미래는 기대 속에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현재만이 진짜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과도 부합하지 않나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추억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즐기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지나가고, 시간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변화의 영역이며, 생성과 소멸의 영역이다. 생성과 소멸의 영역,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시간관입니다. "내 주위 모든 곳에서 변화와 쇠퇴를 보네"라는 익숙한 찬송가 가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내 주위 모든 곳에서 변화와 쇠퇴를 보네"라는 구절 말이죠.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실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간이 영혼 속에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이고, 미래는 현재이다. 이 모든 시간은 영혼 속에 현재로 존재한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들을 언제나 현재인 '지금'으로 경험한다.

과거와 미래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시간은 영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제 이 점을 이해하면, 그가 하나님을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스 신학의 모델에 따르면, 하나님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가 사라지거나 미래가 아직도래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시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을 초월한 것들, 시간을 초월한 모범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원형들의 형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상들을 통해 개별적인 사물들을 아십니다. 그 형상들은 사물들에게 존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변화와 시간, 즉 오고 가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신의 삶과 구별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신의 지식과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조차도 신이 그 영원한 진리를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변화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젯밤 그 유쾌한 모임 에서 닥터 수스의 시를 읽고 나니 ,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단순히 단어들의 짤랑거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오늘 떠오르는 생각들인지 궁금해지네요.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닥터 수스의 시에서 그저 운율의 짤랑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제 말뜻을 이해하셨나요? 제가 말하는 건 닥터 수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입니다.

네, 자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연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진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형태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변화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러한 원형적 형태들에 참여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형태들, 즉 근원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특정한 형태 들의 구현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의 마음속에 있는 형태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의 본질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봐도 시간은 존재합니다.

존재의 시작. 소멸.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것들.

하지만 우리가 개별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은 로고스에 의해 밝아진 마음으로 개별 사물의 세계에 있는 사물의 본질 , 본성 ,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명백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음, 그들은 두 가지 모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상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둘 다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인 나와 형상, 즉 모범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상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상들 말입니다.

인간성의 형태. 어, 아마도, 어, 대담함의 형태일 것입니다. 이것, 저것,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신체적 속성, 다른 종류의 자질들.

그래서 그는 여러 형태의 특정한 조합을 알게 됨으로써, 나를 이러한 여러 형태의 특정한 조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후대 중세 학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 논의에서 핵심 용어인 개별화는, 가능한 여러 형태들의 독특한 개별적 조합 덕분에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으로 둔스 스코투스에 이르러서는, 둔스 스코투스는 내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들 외에도 여전히 나의 본성, 즉 '나다움'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한 세기 후, 아니 반세기 후에, 윌리엄 오브 오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은 잊어버리세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 또 다른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즉 개개인뿐입니다.

왜 형태가 필요하죠? 당신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론의 한계점 중 하나는, 비록 그 이론이 종의 본성과 구별되는 개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편성을 우선시하고 개성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더 낮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존재의 위계질서에 내재되어 있는데, 특정 이상에 불완전하게 참여하는 개인은 그 위계질서에서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위 실체적 형상, 즉 개별적인 본성에 관한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개별적인 본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모습입니다. 질문이 뭐죠, 데이비드? 음, 그는 플라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피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없었던, 신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성이 발산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는 플로티누스의 장점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이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개개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 개개인을 창조합니다.

정액의 비율로. 정액의 형태로.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그 시기에 소실된 것 같거든요.

나중이야 복원되었죠. 그래서 그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로티누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원론을 통해서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감지하신 바가 맞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과 상관없이 불변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플라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이 시간을 초월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철학적 신학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성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

또 다른 관점은 영원성 이 영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영원성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지속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은 시간의 초월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원성은 좀 더, 음, 현대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히브리적 관점에 더 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은 아주 많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넬슨 파이크 (Nelson Pike) 교수의 책을 읽어보세요. 파이크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과 영원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영원성 관점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렇죠? 저는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불변하고 영원한 형상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질적으로 모든 형상의 형상인 신이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견해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에 대한 이러한 내성적인 심리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업적입니다.

물론, 창조론이지 발출론이 아닌 방식으로 신을 설명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을 시간과 성질을 초월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보는 관점은 플라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관점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특정 표현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어떤 존재가 변화가 없다면, 그 존재는 특정 시점에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 존재는 특정 시점에 행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 겠죠? 회개하는 죄인들을 보고 천국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만족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목적이라는 개념은 시간 지향적 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개념들을 일반적인 영어 표현과는 다른 개념적 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성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성으로 해석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의 관점, 즉 영원불변성을 더 선호합니다.

음... 칼. 응. 응.

네. 네. 네.

물론, 논리적 흐름을 따르거나, 한 초점에서 다른 초점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찰의 흐름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논리적 과정의 단계에 대한 초점 전환, 즉 주의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원에 대한 관점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이 생각한다고 말할 때, 신이

삼단논법을 통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 되시죠 ? 신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빠르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먼저 그곳에 계시듯이, 생각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관심의 대상, 그리고 영원을 영원불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항상 모든 것을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계셔서 그분의 생각의 초점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일상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 일까요? 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하다는 언어는 하나님이 삼단논법을 통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을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변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현상적인 언어, 즉 인간에게 보이는 방식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글썄요, 실제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종의 은유적인 언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게 정말 신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류학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칸트, 키르케고르 등이 직면했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현대 신학은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목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다시 생각해 보니, 신의 계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지식은 계시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니요, 만약 단순히 깨달음만으로는 마음이 수동적이게 되고, 결국에는 아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을 밝혀주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야만 합니다 빛 속 에서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말해 창조, 그 아름다움,

질서, 형태를 묵상함으로써, 모든 창조물이 참여하는 아름다움, 선함, 질서, 형태의 근원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진리에서 진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선에서 선으로,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증명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형상에서 형상성으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신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걸 일관되게 부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신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떤 특별한 신적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신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질문은 바로 종교적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알겠죠? 바로 그게 질문입니다. 플라톤 전통, 특히 신플라톤 전통에서는 신에 대한 신비주의적 접근 방식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좋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백록』 10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육체적인 아름다움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제 영혼 속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왜 영혼 속에 있냐고요? 제 영혼 속에는 영원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시간이 내 영혼 속에 현재이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그것이 영원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 속의 무언가이며, 따라서 나는 내 영혼을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결합하는 생명 너머, 내가 가진 모든 감각 지각 너머, 심지어 과거의 감각 지각에 대한 기억 너머, 과거의 감각 지각에 대한 기억 너머, 내가 가진 모든 교양 교육, 수학,

그리고 내게 형태를 알려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 너머, 감각 이미지와는 독립적인 변증법을 통해 얻은 지식 너머, 내 감정 너머에 말입니다.

자, 저는 감각 지각에서, 감정에서, 형상에 대한 지식에서, 혹은 기억에서 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신을 찾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 선에 대한 축복받은 기쁨,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 선 그 자체를 찾고 있습니다. 플라톤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선, 모든 형상 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록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사랑, 생명, 선함, 아름다움, 진리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신비주의 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글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종교적 경험의 친밀함 속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이 계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적 경험이란 감각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신과 영혼을 단련하고,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조차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때때로 그는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신비적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 말은 다소 모호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문제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종교적 경험에 대해 신플라톤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적인 언어에만 국한해서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고백록』에서 종교적 경험을 다룰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너무나 밀접 하게 얽혀 있고 섞여 있어서,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답은 모호합니다. 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에 암묵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고스의 빛 덕분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식, 즉 창조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의 논증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종교적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받은 용서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영혼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며, 죄책감으로 인해 변화하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네,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